

창업 쉬운 음식·소매업...절반이 폐업

국세청 자영업자 폐업 통계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가장 많이 운영...경쟁 심화 8년간 도소매업체 10만개, 숙박·음식업 6만개 늘어

지난해 초 퇴직한 A(56)씨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고깃집을 냈다가 어려운 경험을 했다. 개업 초기 장사가 잘 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이 줄더니 연말에는 임대료도 못낼 정도로 수익이 나질 않았다. 인건비 때문에 가정주부였던 본인까지 가게에 나와 일을 도왔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4명은 음식점이나 소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점업을 그만둔 자영업자들 대부분은 영입이 잘 안 돼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

를 보면 2014년 폐업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68만604명으로 집계됐다. 14개 업태별로 보면 식당을 운영하다가 접은 자영업자가 15만6453명으로, 전체 자영업 폐업 가운데 23.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편의점, 옷 가게 등 소매업이 14만36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매업 폐업자는 전체 20.6%로 집계됐다. 음식점과 소매업 폐업 자영업자가 43.6%에 달하는 셈이다. 소매업 다음으로는 서비스업(11만3319명), 부동산임대업(8만578명), 운수·창고·통신업(5만2327명) 순이었다.

폐업한 소매업도 50.6%가 사업이 잘되지 않아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이나 소매업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의 폐업이 유달리 많은 것은 이들 업종의 창업이 비교적 쉬워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퇴 후 마땅한 노후 준비가 되지 않

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창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수는 2006년 86만5045개에서 2013년 96만388개로 10만개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에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도 62만1703개에서 68만6225개로 6만개 이상 증가했다.

조계현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장은 “노후가 불안한 베이비부머들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업종의 공급만 늘어 폐업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컨설팅 등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노후 대비 사회보장 시스템을 강화하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지난 4일 윤장현 광주시장이 대우에이텍 광주공장을 찾아 전기압력발출 '딤채국' 생산 라인을 둘러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라현근 대우에이텍 총괄사장, 윤장현 광주시장, 박성관 대우위니아 대표이사. <대우에이텍 제공>

윤장현 시장 “대우, 지역경제 활성화 일등공신”

소촌동 광주공장 방문

윤장현 광주시장이 대우그룹 계열사인 대우에이텍 광주공장을 방문하는 등 대우그룹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대우그룹은 윤 시장이 지난 4일 광산구 소촌동 대우에이텍 광주공장을 찾아 생산 현장 임·직원을 격려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날 윤 시장은 라현근 대우에이텍 총괄사장과 박성관 대표이사도 함께 광주공장의 자동차 부품생산 라인을 둘러본 뒤 대우위니아 프리미엄 IH 전기압력발출 '딤채국'과 휴대용 자연 가습 정수기 '위니

아 스프워셔' 생산라인을 방문했다.

윤 시장은 “대우위니아가 에어컨, 에어워셔 뿐만 아니라 전기압력발출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대우그룹이야말로 협력업체의 매출 신장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일등공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위니아는 지난해 6월 광주시와 대규모 생산, 물류, 서비스 기지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해 교류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인 가구 증가...백화점·대형마트 갈수록 침체

산업연구원 유통산업 구조변화 비교

인구 대비 점포 수 포화...편의점·모바일 쇼핑 매출 계속 성장

국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수가 인구 대비 포화상태에 달해 향후 유통업계의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숙경 산업연구원(KIET) 연구원은 10일 발표한 ‘한·일 유통산업 구조변화의 비교·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한국에서 나타난

백화점 업계 침체 현상을 분석하면서 소비 패턴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주목했다. 대형 유통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대형마트 등의 침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와 흐름이 비슷한 일본 유통업과 비교하면서 “일본의 경우 대

형 유통업체에 대한 정부 규제가 완화된 1990년대 후반 이후에도 백화점 등의 쇠퇴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근거리 쇼핑, 온라인·모바일 쇼핑, 해외 직구, 아울렛 등 대체 쇼핑 채널이 성장함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시장 자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인구 대비 점포 수 측면에서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시장은 포화상태”라고 설명했다.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편의점이 성장하고 있

고, 모바일 기술 발전으로 온라인 쇼핑이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요인들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매업계가 시장이 성숙기에 도달하면서 추가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라 백화점 업계의 침체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소매업 분야의 내재적인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전체적으로 소비지출 능력을 확대해 시장이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구학적, 기술적, 문화적 변화에 따른 소비트렌드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통업계의 혁신적 노력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연향뉴스

광주 설 선물 1위는 ‘건강식품’

홍삼 등 전년비 매출 32% ↑...백화점 설 선물 평균 매출 6% ↑

경기침체 탓일까,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에도 중저가 선물세트가 인기였다. 너무 비싼 선물보다는 실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보조식품 등이 잘 팔렸고, 매출 신장도 5~7%에 머물렀다.

광주신세계(총괄임원 임훈)가 지난 1월 21일부터 지난 6일까지 17일간 '2016 설 맞이 선물세트 판매전'을 진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5.0% 매출이 소폭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신세계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진행된 명절 선물세트 판매전을 작년 설 때와 비교해 품목별로 살펴보면 홍삼 등 건강 보조 식품세트가 32%, 와인세트 17%, 굴비세트 15%가량 신장하는 등 매출 호조를 보였다. 또 중저가 실속형 선물세트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10만원 이하의 와인세트와 10만원대의 굴비세트가 꾸준한 판매되며 두 자릿수 신장세를 보였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도 인기를 끈 것도 특징이었다. 나주, 함평, 장성, 장흥, 곡성 등지에서 직접 거래한 '남도 한우'와 초생재배 방식과 우사에서 수거하여 2년간 발효시킨 자연비리로 키운 '장성

나우식 사과', 인공수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천연 혼합비료를 직접 발효시켜 키운 '나주 남순배'가 잘 팔렸다.

또 신안 영백염전 천일염으로 간한 영광 법성포 77번 중매인 구용우 생선제의 '구가네 굴비' 등 스토리를 입힌 차별화된 설 선물세트가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지난 1월 18일부터 지난 6일까지 진행한 '설 선물세트 판매' 결과 지난해(15년 1월 29일~2월 17일) 대비 7.0% 신장했다. 상품군별 판매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올해 설 광주지역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끈 선물세트는 단연 건강세트였다.

건강세트 외에는 계속되는 불황에 중저가 선물세트가 매출을 주도했다.

대표적인 중·저가 선물세트인 실속형 가공세트의 경우 약 50%가량 매출이 신장하며 인기 품목으로 올랐다. 세부적으로는 삼푸와 주방세제 등 생필품 세트가 약 8% 신장한 것에 비해 참치, 행 등 가공식품 세트가 약 61%가량 신장하며 불황에 큰 인기를 끌었다. /오광록기자 kroh@



유럽 최대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16'에서 관람객들이 삼성전자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 혁신적인 스마트 사이니지 솔루션 등을 선보였다. <삼성전자 제공>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외국인들에게 더 사랑받는 가장 제주다운 리조트

환상의 섬 제주,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힐링하는 곳!

가족, 연인, 기업워크숍, 수학여행단 등 **예약 064-739-889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촌면로 1999-34 (9천평) 225-4

제주아이브

동나무 독채형객실	편안드롭수를 직접 수입하여 정성껏사공한 프라이빗한 동나무 독채형객실
레지던스형객실	바다전망과 2인스파를 보유한 레지던스형 리조트 타입의 객실
골프투어 최적지	레이크힐스cc, 우라들cc, 롯데스카이힐스cc, 윈크스cc, 4개골프장 5분거리, 골프투어 최적지, 차량이동시간임
한라산등반 최적지	한라산 명실코스 15분, 성관역 차장으로 25분 소요, 한라산 등반 최적한 입지, 차량이동시간임
쇼핑의 편리	중문관광단지 10분, 서귀포 시가지, 이마트8출몰코스 15분, 차량이동시간임
일리버더먼트	주중 30%, 주말 20% 할인적용(단, 성수기 - 중성수기 - 연휴기간 제외)
렌트카 90% 할인	별라 15만 동나무만을 1박 + 15 or YF소나타 24시간 79,900원 (비수기 주중 기준)
단체수요 시설원비	300명 단위의 기업단체 및 수학여행단, MICE가능, 50인 수용 가능한 최신 워크숍을 원비, 150인 수용가능한 아이브를 원비, 조·중·석식가능